

회원사소식

(주)대청엔지니어링, 환경 · 안전경영시스템 인증 획득으로 앞서가는 기업 추구



▲ '졸면 먹힌다'는 경영철학을 갖고 있는 성열구 대표는 품질·안전·환경 경영시스템 인증 획득으로 앞서가는 기업을 추구하고 있다.

품질경영시스템 정착으로 생산성 향상, 신명나는 일터 만들어

앞서가는 기업은 뭔가 남다르다. 저 멀리 내다보고 남들보다 빠르게 움직인다.

(주)대청엔지니어링(대표 성열구)이 그렇다.

건설업계에 ISO 9001 인증 획득 바람이 불기 전인 지난 1996년 (주)대청엔지니어링은 ISO 9001 인증을

획득하고 시공 및 관리업무의 표준화 작업에 나섰다.

그 당시 건설분야에서 표준화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더구나 설비를 비롯한 전문건설업계에선 생소한 일이기도 했다. 그만큼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던 시절이었다.

지금은 설비건설업계에서 품질경영시스템(ISO 9001) 인증을 받지 않은 회사가 별로 없을 정도로 품질경영시스템은 저변확대 되었다.

회원사소식

대청엔지니어링은 품질경영시스템을 획득한 후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손실절감과 생산성 향상, 업무분장의 정립을 통해 부서간 마찰 감소 등 의욕적이고 신명나는 일터를 만들어 냈다.

또한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한 후 10년이 지나면 다시 인증을 받아야 하는 만큼 지난 2005년 다시 한번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품질경영시스템이 회사 내에 정착되었음을 입증하기도 했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 획득으로 재해예방에 만전

그러나 대청엔지니어링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이번에는 환경경영과 안전경영에 눈을 돌렸다.

대청엔지니어링(대표 성열구)은 지난 해 한국품질보증원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과 환경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했다.

한국품질보증원에서 실시하는 인증 획득으로는 설비건설업계 최초이다.

대청엔지니어링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OHSSMS : Occupation Health and Safty Management System), K-OHSMS 18001]을 획득함으로써 산업 재해 예방과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조직 내부의 위험 및 위해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또한 현장 내 재해예방 및 사고율 감소(사고비용 절감, 보험요율 혜택 등)와 예방점검을 통한 장비, 설비의 가동률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근로자의 복지 개선에도 한 몫 하고 있다.

환경경영시스템 획득으로 환경보호에 앞장서

대청엔지니어링은 또 환경경영시스템[EMS :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ISO 14000]을 획득함으로써 폐기물 및 대기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환경 친화적 제품 및 서비스 개발, 환경영향의 지속적인 관리 및 감소와 함께 폐기물 처리비용 감소, 원료의 효율적인 사용 등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줄면 먹힌다’는 경영철학은 선구자적 길을 걷게 해

‘줄면 먹힌다’는 경영철학을 가지고 있는 대청엔지니어링의 성열구 대표는 경영에 남다른 안목을 갖고 있다. 성열구 대표의 이러한 경영철학 때문에 대청엔지니어링은 설비건설업계에서 선구자적인 길을 가고 있다.

성열구 대표는 “잘 사는 것에 대한 관심이 높은 웰빙시대는 눈에 보이지 않는 환경 및 품질에 대한 요구와 함께 온도, 습도, 청정도, 소음 등 생활환경의 쾌적도 외에 물의 품질제어까지 요구하는 시대”라면서 “이러한 시대는 설비의 영역 확대를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 설비건설인들이 고품질의 시공으로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 첨단기술을 펼칠 때”라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 삶의 터전인 설비를 비전있는 설비로 만들기 위해서는 설비의 독자성을 확보해야 하고, 이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